

## 스마트폰 이용에서 사이버폭력의 그 원인들 및 인터넷윤리의 통제효과에 대한 통합적 검증 연구

장 하영\* · 이 성식\*\*

### 요약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주요 원인으로 고려하고 이때 인터넷윤리의식이 그 원인들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갖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원인요인과 통제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통합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피해경험과 인터넷윤리의식과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 및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공식처벌인지와 부모와의 유대와의 상호작용효과도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 조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는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요인 중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만이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경험이 있는 친구와 사귄수록, 그리고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인터넷윤리의식을 가지는 경우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모형의 검증을 위한 사이버폭력의 원인요인과 통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윤리의식은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피해경험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고, 부모유대는 친구와의 접촉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공식처벌인지는 모든 원인요인에 있어 유의미한 통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윤리의식이 다른 통제요인과 비교할 때 원인요인의 작용에 주요 통제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주제어 : 사이버폭력,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 친구, 피해경험, 통합모형

## An Integrated Test of Interaction Effect between Causes and Internet Ethics of Smart Phone Cyber Bullying

Jang, Ha-Young\* · Lee, Seong-Sik\*\*

### Abstract

This study constructs an integrated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smart phone cyber bullying and tests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ausal and control factors. Causal factors include low self-control,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s,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control factors include internet ethics, perceived certainty of formal punishment, and bond to parents.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how internet ethics buffers the effect of causal factors in cyber bullying. Results show that both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s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yber bullying. And among the control factors, internet ethics only has a negative direct effect on cyber bullying.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wo causal factors -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bullying peers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 and internet ethics. It is also shown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bond to parents, but a perceived formal punishment has no significant control effect. It is revealed that internet ethics is a main control factor in buffering the effects of causal factors in cyber bullying.

Keywords : cyber bullying, internet ethics, cyber bullying peers, victimization, integrated model

Received Jan 24, 2019; Revised Apr 2, 2019; Accepted Apr 5, 2019

\* First Author, Graduated student, Soongsil University (jhyno2@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lss824@ssu.ac.kr)

## I. 서론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인터넷 활성화 정책과 집중투자의 결과로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1년 56.6%에서 2016년 88.3%로 증가했을 만큼 인터넷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정보획득 등 사회 다방면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역기능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이버폭력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사이버폭력은 최근 휴대폰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빈번해지고 위험성이 커졌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사용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함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 및 모바일메신저 상의 새로운 방식의 폭력으로까지 확장되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사이버폭력의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ung, et al., 2006; Nam & Kwon, 2013). 하지만 청소년의 사이버폭력과 성인의 사이버폭력은 그 주된 특징 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Lee, et al.(2015)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일반적인 사이버폭력보다 현실의 폭력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의성이 희박하며, 행동이 비일관적이며, 익명성과는 무관한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은 빠른 피해확산속도, 가중된 피해,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가해 진원지 추적의 어려움, 원상회복의 불가능, 법집행의 어려움, 2차 피해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성인 사이버폭력은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성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한 2017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초,중,고 학생은 16.2%, 성인은 18.4%이며, 피해경험은 초,중,고 학생 16.6%, 성인 23.1%로 청소년층보다 성인층이 다소 높았으며, 2015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청소년층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성인의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

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본 연구에서는 더욱이 스마트폰을 다룬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2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사이버폭력의 다양한 원인들을 검토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사이버폭력의 대책으로 다양한 법적, 기술적, 사회문화·윤리적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법적 대안은 온라인공간의 특성상 발각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기술적 대안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인터넷윤리가 그 주요 대처방안으로 언급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인간의 도덕성은 현실공간에 비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다 근원적인 사이버폭력의 해결과 인간 중심적이며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인터넷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윤리가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Choo, 2003, 2012). 특히 스마트폰의 이용은 휴대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기존의 유선인터넷보다 개인의 도덕성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과 함께 복잡하고 지능화된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윤리의 강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폭력 연구들에서는 인터넷윤리의 필요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과 인터넷윤리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 기존의 연구도 성인보다는 청소년이나 학생층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어 성인에 관한 인터넷윤리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폭력에서 인터넷윤리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성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터넷윤리의 통제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기존의 사이버폭력 연구들의 설명요인을 참고하여 여러 주요 원인들을 선정하고, 원인요인과 통제요인들을 통한 통합모델을 제시하여 그 중 인터넷윤리가 여러 원인들의 작용을 통제할 중

요한 통계적 설명요인이 되는지 경험연구를 통해 검증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스마트폰 이용의 사이버폭력에서의 대책으로서의 인터넷윤리의 정책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사이버폭력과 스마트폰 매체의 이용

사이버폭력은 현실폭력과는 구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와 유형은 아직 합의된 없지만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신상정보유출’, ‘사이버따돌림’ 등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된다(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사이버폭력은 유선인터넷 상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 연구 역시 유선인터넷 상의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함께 인터넷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유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은 ‘휴대성’이라는 뚜렷한 매체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통신 중심의 휴대폰과 인터넷 기능이 합쳐져 있는 매체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통신의 특성 면에서는 문자와 전화기능을 통한 기존의 아는 사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기존의 유선인터넷과 비교하여 더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능은 휴대성과 결합되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은 기존의 사이버폭력과 공통된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그 원인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 Lee(2011)의 연구에서는 현실, 인터

넷, 휴대전화의 비행의 원인을 비교하여 연구하였지만 세 매체 모두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주요 원인이 된다는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통제요인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어 현실비행에서는 주위 사람들과의 비공식 사회유대가, 휴대전화비행에서는 공식처벌이, 그리고 윤리의식 등의 개인도덕신념은 모든 매체의 비행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Lee(2014)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이용형태에 따른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사이버일탈 가능성이 데스크탑 이용자나 노트북 이용자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일탈자와의 차별접촉이 다른 매체에서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을 다룸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폭력 경험 친구와의 접촉과 함께 그 외 요인들을 포함하고 특히 대책이자 통제요인으로서 인터넷윤리를 포함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매체연구에서의 주요 요인들이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 설명에도 잘 적용되는지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 2.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요인

#### 1) 낮은 자기통제력

낮은 자기통제력은 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의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원인요인이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순간적인 유혹에 견디지 못하는 정도로 정의되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단순작업을 선호하고, 위험을 추구하며, 현재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화 기질이 많은 성향을 갖고 이러한 특성이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자기통제력은 어릴 때 부모의 양육에 의해 형성되지만, 한번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향이 되어 비행과 성인시기까지도 범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비행과 범

죄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Pratt & Cullen, 2000), 국내에서도 Min(2006)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비행과 폭력 연구에서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고(Lee, 2010; Nam, 2011; Nam & Kwon, 2013),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있어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Lee, 2014).

## 2)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은 차별접촉이론과 사회학습이론(Sutherland, 1947; Akers, 1998)에 근거한 원인요인이다. 차별접촉이론은 비행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집단과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하면 비행태도를 학습하여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때 비행에 호의적인 집단이 또래집단과 같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친구와 접촉빈도, 접촉기간, 우선성 및 강도가 높을 때 비행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그동안의 비행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각광을 받아 왔으며(Warr & Stafford, 1991; Chapple, 2005), 그와 같은 비행친구 혹은 범위반자와의 접촉은 사이버비행과 범죄에서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지되고 있다(Skinner & Fream, 1997; Higgins, et al., 2007; Nam & Kwon, 2013; Kim, 2013). Lee and Jun(2015)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인 문자, SNS, 인터넷접속 모두에서 사이버불링자와의 차별접촉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3) 피해경험

피해경험은 Agnew(1992)가 제시한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원인요인이다. Agnew는 긴장요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하여 이러한 긴장요인으로 인해 화,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긴장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는데(Agnew & White, 1992). 피해경험은 Agnew가 제시한 긴장요인 중 부정적 자극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tchin and Hinduja(2011)는 사이버폭력에서 과거의 피해자가 보복의 동기로 폭력가해를 한다는 것을 제시했고, 국내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의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제시하였다(Lee & Jun, 2011; Kim, 2013). 그리고 현실에서의 폭력피해경험보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의 더 중요한 원인이 된다(Kim & Choi, 2013; Lee, et al., 2015).

## 3. 사이버폭력의 통제요인으로 인터넷윤리의식

그와 같은 여러 원인과 동기에도 무엇이 그것을 통제하는 대책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을 그 주요 통제요인으로 제시한다. 인터넷윤리는 사이버윤리 혹은 정보통신윤리라고 혼용되는 것으로, 정보사회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로서 옳음과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체계라 볼 수 있다(Choo, 2001). Choo(2012)에 따르면 현실공간에 비해 사이버공간에서 훨씬 잦은 도덕적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며 사이버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법, 기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효과는 제약적이며 인터넷윤리에 기반을 둔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인터넷윤리는 익명성과 자유성이 보장된 사이버공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질 필요가 있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전통윤리에 기초하면서도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변형된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학자로 초기에 Severson(1997)은 지

적재산권 존중, 프라이버시 존중, 공정한 표현, 해악금지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대표적인 학자인 Spinello(2000)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도덕적 문제행위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그 기본 원리로 자율성, 해악금지, 선행,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에서 Choo(2001)는 인터넷 윤리의 기본 원리로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를 제시하였다. Choo의 논의를 중심으로 보면 첫째, 존중은 자신과 타인을 가치있고 귀하게 대하는 것으로, 사이버공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음란물, 도박 등에 빠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저작권이나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것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책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면서도 서로 보살피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세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책임의 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한다. 셋째, 정의는 공정한 것 자체를 추구하려는 것,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 정해진 규범과 법을 준수하면서도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을 뜻한다. 사이버공간에서 공정한 정보교환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옳지 못한 규칙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해악금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언어폭력을 하거나, 해킹 등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Choo, 2001).

인터넷윤리의식은 사이버범죄의 주요 설명요인이 되어 인터넷윤리의식이 낮을 때 사이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시되는데(Kim, 2004), 인터넷윤리의식은 사이버폭력의 통제와 예방책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Lim, 2011) 많은 경험연구가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실증적으로 연구된 기존 연구를 보면 Sung,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이 낮은 것을 제시했고, 또한 Kim and Park(2008)의 성인대상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윤리수준이 인터넷폭력 가해경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했다. Lee(2009)의 연구에서도 개인윤리의식이 악성댓글의 통제요인으로서 가장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Lee,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사이버윤리의식이 높고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청소년이 사이버불링에 덜 가담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 Ⅲ. 연구가설과 방법

#### 1.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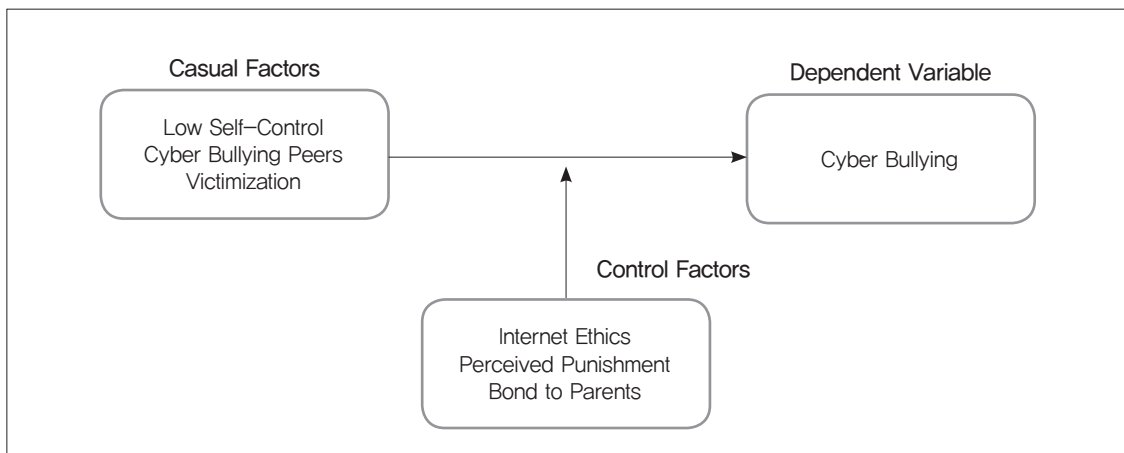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의 원인 및 기존 연구들에서 많은 대안으로 언급된 인터넷윤리의 통제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통합적 모델을 구성한다. 국내 사이버폭력 연구에서는 통합모델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Lee(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원인요인과 통제요인을 포함한 통합론적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원인요인과 통제요인은 상호작용을 하여 원인요인들의 작용에서 통제요인들이 그 영향을 통제하는지로 비행을 설명한다. 이러한 통합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의 근거로는 Gottfredson and Hirschi(1990)의 일반이론과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 그리고 Colvin, et al.(2002)의 강제와 지지이론이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일반이론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을 범죄의 주된 요인으로 보면서도, 범죄의 기회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여 실증주의와 고전주의 두 학파 모두의 입장을 통합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범죄기회가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것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들이 범죄의 기회가 갖춰졌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한 논의는 이후 낮은 자기통제력이 개인태도나 도덕성과 같은 요인들과도 상호작용한다는 것으로 발전했다(Schoepfer & Piquero, 2006; Higgins, et al.,

2007). 또한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등 일상에서 오는 긴장요인들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비행이나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제시하면서도(Agnew & White, 1992), 이때 차별적접촉/사회학습이론의 비행친구 요인이나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유대, 그리고 충동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과도 상호작용하여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작용을 한다고 보면서 통합이론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Colvin, et al.(2002)의 강제와 지지이론에서는 범죄를 유발하는 강제요인과 그것을 통제하는 지지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 어떠한 주요 원인을 제시하면서도 그 원인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 원인들의 작용을 촉진하거나 혹은 그것을 통제하는 조절변인을 또 다른 요인으로 강조하는 통합적 시도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통합논의들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구성한 통합모형의 원인요인으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 사이버폭력의 원인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합적 논의에 따라 이러한 원인요인들을 갖추더라도 통제요인이 작용할 경우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 보는데, 여기서는 그 주요 조절변인으로서의 통제요인으로 인터넷윤리의식이 유의미한 작용을 미칠 것으로 본다. 온라인공간과 같은 익명의 상황에서는 사적자아의식이 작동하여 개인의 내적 소신과 신념 및 태도에 의해 행동할 가능성이 높는데(Matheson & Zanna, 1988),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에는 휴대성으로 인해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다른 매체 이용시보다 사적자아의식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윤리의식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다른 사이버범죄유형에서보다도 사이버폭력 등의 비행과 범죄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이 독립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Sung, et al., 2006), 여러 원인들의 작용을 통제하는 요인으로도 주목받고 있어(Lee, 2011), 여기서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논의의 근거로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인터넷윤리의식이외에도 공식처벌인지와, 부모와의 유대를 다루기로 하는데, 기존 억제이론가들은 공식기관의 처벌 등의 통제가(Gibbs, 1975), 그리고 사회통제가



〈그림 1〉 사이버 폭력에 대한 통합적 모델  
 〈Fig. 1〉 Integrated Model for Cyber Bullying

론에서는 부모 등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 등이 통제요인으로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Hirschi, 1969; Cernkovich & Giordano, 1987). 여기서는 과연 인터넷윤리가 공식차별이나 주위와의 유대보다도 중요한 통제역할을 하는지를 비교하면서 다룰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원인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갖고 있거나, 사이버폭력 친구와 접촉하고,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그러한 원인요인을 보이는 사람들도 인터넷윤리의식이 높거나, 사이버폭력에 관한 공식차별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부모와의 유대가 강하다면 원인요인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즉 그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인터넷윤리의식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20대이며, 현재의 대학생 집단이 스마트폰의 도입시기부터 활발하게 이용해온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20대 대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는 2017년도 서울시에 소속된 일곱 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대학에서 각각 35명씩 남녀 1:1비율로 조사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전체 266명의 응답자 중 스마트폰 이용자 251명이 최종 대상자가 되었다.

먼저 종속변인으로 다룰 사이버폭력은 국내 주요 기관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에서 정의한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신상정보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그것에 해당하

는 구체적 질문, 즉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다음의 문항들에서의 경험들, “나는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SNS에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나는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나는 인터넷에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퍼뜨린 적이 있다”, “나는 메신저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하고 놀리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등의 질문을 하고 그 경험을 ‘없다’, ‘1회’, ‘2~3회’, ‘4~9회’, ‘10회 이상’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0점~4점까지 점수를 부여했으며,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였다(alpha=.889).

독립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따라(Grasmick, et al., 1993) 낮은 자기통제력의 특성인 충동성, 위험추구성, 활동성, 단순작업추구성, 이기성, 화기질 등을 묻는 여섯 개의 문항을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632). 또 다른 독립변인인 사이버불링 친구와의 접촉은 종속변인에서의 여섯 가지의 항목에서 친한 친구가 그 행위를 했는지를 ‘없다’,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이를 점수화하고 합산하였다(alpha=.867).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여섯 가지 항목에서의 피해경험 정도를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것을 합산한 값으로 변수를 계산하였다(alpha=.811).

통제요인으로 인터넷윤리의식은 Choo(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인터넷윤리의 네 요소인 존중, 정의, 책임, 해악금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나씩 네 문항과 함께 일반적인 인터넷윤리의식 문항을 추가한 총 일곱 문항을 묻고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59).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공식차별인지는 처벌의 확실성을 중심으로 앞서 사이버폭력의 여섯 항목에서 각각 자신이 행했을 때 처벌받을 가능성을 질문하고 ‘전

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여 합산한 값으로 변수를 계산하였고( $\alpha=.912$ ), 부모와의 유대는 '부모님과 나는 서로 잘 이해하는 편이다' 등의 여섯 문항을 질문하여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응답하고 합산하였다( $\alpha=.823$ ).

또한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인으로 성은 남성(=1), 여성(=0)을, 연령은 만 나이를 물어서 기입하였다.

#### IV. 분석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36명으로 52.7%를, 여성은 115명으로 44.6%를 차지해 성별 분포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자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27세까지 이르는 분포를 나타냈다. 이중 22세가 49명(1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23세 46명(17.8%), 24세 32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은 최소값인 0과 가까운 것으로 보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과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의 평균은 각각 1.880, 3.281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가해보다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전체 범위의 중앙값보다 평균이 다소 낮게 17.555가 나온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의 평균 자기통제력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The Number of Subjects	%
Gender	Male	136	52.7
	Female	115	44.6
	Non-response	7	2.7
Age	18	13	5.0
	19	25	9.7
	20	27	10.5
	21	28	10.9
	22	50	19.4
	23	45	17.4
	24	32	12.4
	25	18	7.0
	26	8	3.1
	27	1	0.4
	Non-response	11	4.3
Total		258	100.0



측의 평균은 1.779로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의 횟수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요인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윤리의식의 평균은 28.463으로 응답자들의 인터넷윤리의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식처벌인지의 평균은 24.237로 높았고, 부모유대는 평균 24.329로 평균적으로 부모와의 유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다른 각각 세 가지의 원인요인의 종속변인인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p < .001$  수준에서 사이버폭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사이버폭력 친구와 접촉할수록 그리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을 더 저지른다는 것을 제시한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Results of Major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Range
Cyber Bullying	1.880	3.751	0-24
Low Self-control	17.555	3.772	6-30
Cyber Bullying Peers	1.779	3.348	0-24
Victimization	3.281	4.122	0-24
Internet Ethics	28.463	4.147	7-35
Perceived Punishment	24.237	4.561	6-30
Bond to Parents	24.329	3.837	6-30

〈표 3〉 사이버폭력에서 원인요인의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Influence of Causal Factors on Cyber Bullying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Cyber Bullying	
	b	$\beta$
Gender(Male)	.762*	.105
Age	-.144	-.082
Low Self-control	-.060	-.062
Cyber Bullying Peers	.393***	.331
Victimization	.457***	.504
R-square	.609	
F	74.394***	

\*=p<.05, \*\*=p<.01, \*\*\*=p<.001

다. 그 중에서도 베타값을 보면 피해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배경적 특성에서 성별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남성일수록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원인요인과 함께 통제요인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영향력을 다룬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원인요인 중에서는 사이버폭력 친구접촉과 피해경험이  $p < .001$ 의 높은 수준으로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고 통제요인 중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만이  $p < .01$ 의 수준으로 사이버폭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인터넷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을 덜 저지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식처벌인지와 부모와의 유대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배경적 특성은 성별은 남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p < .05$ 의 수준에서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이 높았다.

〈표 5〉에서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통합론적 모델을 검증한 결과로 원인요인과 통제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요인으로 살펴본 인터넷윤리의식의 원인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결과에서 보듯이 인터넷윤리는 낮은 자기통제력과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피해경험과는 각각  $p < .05$ ,  $p < .01$ 의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즉 스마트폰 이용시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는 친구를 사귀거나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는데, 이때 높은 인터넷윤리의식을 갖출수록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결과에서 보듯이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공식처벌인지는 원인요인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세 번째 결과에서 부모유대는 낮은 자기통제력과는  $p < .05$ 의 유의확률로 정(+)적으로, 그리고 사이버폭력 친구와

〈표 4〉 사이버폭력에서 원인 및 통제요인의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Influence of Causal and Control Factors on Cyber Bullying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Cyber Bullying	
	b	$\beta$
Gender(Male)	.764*	.104
Age	-.151*	-.086
Low Self-control	-.051	-.053
Cyber Bullying Peers	.382***	.321
Victimization	.419***	.462
Internet Ethics	-.122**	-.138
Perceived Punishment	.022	.028
Bond to Parents	-.026	-.027
R-square	.627	
F	49.125***	

\*= $p < .05$ , \*\*= $p < .01$ , \*\*\*= $p < .001$

의 접촉과는  $p < .01$ 의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부모와의 유대감이 클수록 사이버폭력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시했지만 그 영향

〈표 5〉 사이버폭력에서 원인 및 통제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Interaction Effect of Causal and Control Factors on Cyber Bullying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Cyber Bullying					
	b	$\beta$	b	$\beta$	b	$\beta$
Gender(Male)	.630*	.086	.708*	.097	.671*	.092
Age	-.104	-.059	-.140	-.080	-.153*	-.087
Low Self-control	-.041	-.043	-.049	-.051	-.053	-.055
Cyber Bullying Peers	.236***	.199	.395***	.332	.383***	.322
Victimization	.345***	.381	.456***	.503	.415***	.457
Internet Ethics	-.133***	-.151				
Perceived Punishment			-.012	-.015		
Bond to Parents					-.053	-.056
Low Self-control * Internet Ethics	.007	.032				
Cyber Bullying Peers * Internet Ethics	-.027*	-.129				
Victimization * Internet Ethics	-.037**	-.200				
Low Self-control * Perceived Punishment			.011	.070		
Cyber Bullying Peers * Perceived Punishment			.000	-.001		
Victimization * Perceived Punishment			.002	.012		
Low Self-control * Bond to Parents					.019*	.081
Cyber Bullying Peers * Bond to Parents					-.049**	-.163
Victimization * Bond to Parents					.009	.042
R-square	.683		.614		.633	
F	56.150***		41.574***		44.723***	

\*= $p < .05$ , \*\*= $p < .01$ , \*\*\*= $p < .001$

력은 낮았고, 스마트폰 이용에서 사이버폭력을 저지른 친구와 가깝게 지낼수록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는데, 이때 부모와의 유대감이 클수록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원인요인을 통제해 통제요인은 없었지만, 통합모델의 가설과 같이 통제요인들 가운데 인터넷윤리의식이 원인요인들의 영향을 가장 유의미하게 통제하였다.

## V. 결론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주요 원인들을 고려하고 이때 사이버폭력의 통제요인으로 제시된 인터넷윤리의식이 중요한 통제효과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높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통합모델을 구성하고, 원인요인과 통제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피해경험이 종속변인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에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때 높은 인터넷윤리의식을 갖고 있거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공식처벌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부모와의 유대가 강하면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때 인터넷윤리의식이 가장 큰 통제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는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요인 중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만이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통합모델의 검증을 위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원인요인과 통제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인터넷윤리의식은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피해경험에 통제효과를 보였고, 부모유대는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에 통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공식처벌인지는 모든 원인요인에 유의미한 통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터

넷윤리의식이 다른 통제요인과 비교할 때 원인요인의 작용에 유의미한 통제효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폭력의 대응책으로 기존의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폭력 친구와 접촉하거나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인터넷윤리의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윤리의식의 형성은 사이버공간 내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여 각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선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을 한 경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심도 있는 관심과 애정이 사이버폭력의 예방이 될 수 되므로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의식형성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상호작용 증진 및 애착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응책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스마트폰 매체상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성인을 대상으로 다뤘으며, 대응책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된 인터넷윤리의식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원인요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인터넷윤리교육은 어려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학생에게도 그것이 통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대학교육이나 방송이나 여러 매체 등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공식기관에 의한 강력한 처벌 등의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대상의 인터넷윤리교육은 정규과목으로보다는 대학생들이 특강이나 세미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때(Park, 2012) 부담없는 교육도 고려해야 하지만 Chang(2013)은 대학재학시의 현재수준의 인터넷윤리교육은 윤리의식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면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과목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교육방식도 중요하여 학생주도 참여식과 강의식 중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이 주가 되면서 교수자 지식을 보충하는 식의 통합적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다(Kang, 2013). 그러나 인터넷윤리교육은 학교이외에 가정, 사회,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관련기관이나 인터넷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의 캠페인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Kim & Park, 2008).

본 연구에서 모든 원인요인들 가운데 낮은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사이버폭력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폭력에서는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보다 더 많은 환경요인에 접한 대학생 대상에서는 그 영향력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이 원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영향 및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미약한 것은 측정상의 문제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은 원인요인이 아닌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통제의 요인일 수도 있어 앞으로는 통제요인으로서의 작용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인터넷윤리의식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는 보다 연령이 낮은 아동 혹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의 혹은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기대한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된 연구를 기대해 본다.

## ■ References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gnew, R. & White, H. 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 475-500.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Cernkovich, S. A. & Giordano, P. C.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2), 295-391.
- Chapple, C. 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 89-106.
- Chang, H. (2013).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Internet Ethics Observanc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327-347.
- {장혜란 (2013). 대학생의 인터넷 정보윤리 준수 실태 측정과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권 1호, 327-347.}
- Choo, B. (2001). "Cyber Ethics Establishment Plan." *Information Society & Media*, 3, 164-199.
- {추병완 (2001). 사이버 윤리 정립 방안. <정보사회와 미디어>, 3호 164-199}
- Choo, B. (2003). "A New Approach to Cyber Ethics Education."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12, 133-163.
- {추병완 (2003). 사이버윤리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호 133-163}
- Choo, B. (2012). "Online Moral Disengagement and the Tasks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Journal of Ethical Studies*, 87, 119-141.
- {추병완 (2012).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과 인터넷 윤리교육의 과제. <윤리연구>, 87호 119-141}
- Colvin, M., Cullen, F. T. & Ven, T. V. (2002). "Coercion, Social Support, and Crime: An Emerging Theoretical Consensus." *Criminology*, 40(1), 19-42.
- Gibbs, J. P. (1975).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New York: Elsevier.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ki R. J. & Arneklev B. 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iggins, G., Fell, B. & Wilson, A. (2007).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in Understanding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Mov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5(3), 339-357.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ng, S. (2013). "A Comparison of the Learning Effects on Knowledge, Affectivity and Behavior depending on Internet Ethics Education Method in the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6(5), 31-37.
- {강성희 (2013).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방법에 따른 인지, 정의, 행동 영역별 학습효과 비교. <한국컴퓨터교육학회지>, 16권 5호, 31-37.}
- Kim, G. (2013). "Risk Factors Affecting Cyber Violence in Adolescents."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4), 133-159.
- {김경은 (20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10권 4호, 133-159.}
- Kim, G. & Choi, E.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Cyber Violence: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Journal of Youth Welfare*, 14(3), 259-283.
- {김경은·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권 3호, 259-283.}
- Kim, M. & Park, J. (2008).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Internet Ethics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et Violence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mer*, 33, 65-91.
- {김문구·박종현 (2008). 국내 성인의 인터넷 윤리수준 영향요인과 인터넷 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33호, 65-91.}
- Kim, S. (2004).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Teenager's Consciousness of Telecommunication Ethics and Cybercrime."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6(1), 69-88.
- {김수정 (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권 1호, 69-88.}
- Lee, C., Shin, N. & Ha, E. (2014). *A Study on the Situation of Youth Cyberbullying and Measures to Prevent It*. Reserch Report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이창호·신나민·하은빈 (2014). <청소년 사이버 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Lee, J. & Lee, S. (2014). "The Effect of Cyber Victimization on Cyber Offend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Testing a General Strain Theory." *Studies on Korean Youth*, 25(4), 137-158.
- {이정환·이성식 (2014). 대학생의 사이버범죄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긴장이론의 검증과 그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5권 4호, 137-158.}
- Lee, S. (2009). "A Study on Motives and Control Factors of Youth's Malicious Messages on Internet Bulletin Board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79, 191-212.
- {이성식 (2009).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의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79호, 191-212.}
- Lee, S. (2010).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on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 A Test of General Theor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81, 203-223.
- {이성식 (2010).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일반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81호, 203-223.}
- Lee, S. (2011). "Testing both Risk and Control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in Offline, Internet, and Cell Phone Media."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85, 111-135.
- {이성식 (2011). 청소년 매체이용상 비행에서의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통합적 검증. <형사정책연구>, 85호, 111-135.}
- Lee, S.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Smart Phone User's Cyber Deviance: Comparing with Desktop, Notebook, and Smart Phone Users."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26(3), 265-285.
- {이성식 (2014).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26권 3호, 265-

- 285.}
- Lee, S. & Jun, S. (2015). "An Study on the Causes of University Students' Cyber Bullying: Three Smart Phone Uses of Texting, SNS, and Internet."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6(3), 187-207.
- {이성식·전신현 (2015).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6권 3호, 187-207.}
- Lee, S., Kang, J. & Lee, W. (2015). *A Study on the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Youth Cyber Violence*. Research Report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이승현·강지현·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Lim, S. (2011). "How to deal with Cyber-bullying in terms of Moral Education." *Journal of Ethics*, 81, 291-315.
- {임상수 (2011). 사이버불링에 대한 윤리교육의 대응. <윤리연구>, 81호, 291-315.}
- Matheson, K. & Zanna, M.P. (1988). "The Impact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n Self-aware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 221-34.
- Min, S. (2006). "The Impa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trol Upon Their Crime and Delinquency: Tests of Causality and Generality Claims Using The KYPS Panel Dat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27-47.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권 6호, 27-47.}
- Nam, S. & Kwon, N. (201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verse of Cyber Bullying."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3), 23-43.
- {남상인·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권 3호, 23-43.}
- Nam, S. (2011). "The Effect of Tension and Low Self-Control on Cyber Deviation: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Anonymit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2), 63-74.
- {남수정 (2011).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9권 2호, 63-74.}
- Park, H. (2012). "A Survey on Aware of University Students for Internet Ethics and Malicious Repla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6(9), 2043-2049.
- {박희숙 (2012). 인터넷윤리와 악성댓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6권 9호, 2043-2049.}
-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and Society*, 43(2), 727-751.
- Pratt, T. C. & Cullen, F. 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 Schoepfer, A. & Piquero, A. R. (2006).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Criminal Activity." *Deviant Behavior*, 27, 51-71.
- Severson, R. J. (1997).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Ethics*. Armonk, NY: M. E. Sharpe.
- Skinner, B. F. & Fream, A. M.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Analysis of Computer Crim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495-518.
- Spinello, R. A. (2000). *Cyberethics: Morality and Law in Cyberspace*. Sudbury, M A: Jones & Barlett Publishers.
- Sung, D., Kim, D., Lee, Y. & Lim, S. (2006). "A Study on the Cyber-Violence Induction Factors of Teenagers: Focused on Individual Inclination, Cyber Violence Damage Experience, and Moral Consciousnes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19, 79-129.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호 79-129.}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 Warr, M. & M. Stafford.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851-866.
- Unpublishe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6). "2015 Survey on Cyber Violence." <https://www.nia.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16858&cbIdx=95618&fileNo=1>, (Retrieved on January 5, 2019.).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https://www.nia.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16858&cbIdx=95618&fileNo=1>. (검색일: 2019.01.05.)}
- Unpublished: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2017 Survey on Cyber Violence." <https://www.itfind.or.kr/admin/getfile.htm?identifier=02-008-180515-000001>.(Retrieved on January 5, 2019.).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https://www.itfind.or.kr/admin/getfile.htm?identifier=02-008-180515-000001>. (검색일: 2019.01.05.)}